

다종교사회 종교회합

부처님오신날 특집

근래에 여러 사찰에서 연이어 화제가 발생하는 바람에 많은 피해가 있었고 많은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또 예년에 일어난 비슷한 시기의 비슷한 사례들을 비롯하여 이런 저런 정황을 참작하건대 아마도 다른 종교의 광신자가 저지른 것 같다고 하니 걱정스럽다.

여러 종교가 공존하는 다종교상황, 이것은 거부할 수 없는 우리 사회의 현실이다. 오래전부터 종교학자들은 우리 사회의 다종교상황에 들어있는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해 왔다. 종교의 절대적인 신념을 무기로 해서 서로 찰라

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안녕에 위해를 가하는 반사회적인 것이 아닐 수 없다. 다종교상황이 안고 있는 위험성은 언제라도 기회만 있으면 매우 민감하게 구체적인 충돌로 터져나온다. 왜냐하면 조심하지 않으면 피해가 커진다. 그 갈등이 개인의 문제에 그칠 때에는 그나마 사회적인 충격이 덜할 수 있다. 그러나 행여 종교집단 사이의 갈등이 되어버리면 정말 결박할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달을 수도 있다. 예년의 비슷한 사건들에 관한 기사를 보니



윤원철 (서울대 종교학과 교수)

“남의 종교 인정하지 않는 광신적행태 종교충돌 야기”

대면 도저히 어찌해 볼 수 없는 파국을 맞을 수도 있는 것이다. 갈등의 실제 통기가 다른 데 있는 경우에도 그것이 종교적인 절대 신념의 명분을 옷으로 입었을 때에는 아주 쉽사리 파국을 가져오곤 한다는 점은 인류의 역사와 우리 생활 주변의 여러 가지 실례들을 통해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기왕에 다종교상황을 맞고 있는 이상, 그런 위험을 극복하고 조화로운 공존을 가꾸어 가야 한다는 것이 곧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가치이다. 그러므로 그에 저해가 되는 그런 태도행위는 특정 종교에 대한 위해에 그치는 것

까, 범인이 검거된 경우 대부분 정신 병자로 판명되어 처리되었다고 한다. 즉, 특정 개인의 정신병적인 광신이 그런 사건의 직접적인 통기가 되었다는 얘기이다. 이는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라 할 수 있다. 특정 개인의 정신 상태 문제로 귀착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이 아무리 개인의 정신 상태에 달린 문제라고 해도, 종교 지도자들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아주 비롯없이 꾸는 아이 때문에 그 부모가 민망한 처지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종교 지도자들은 부모의 실정으로 고민해야 할 것이다.

얼마전 또 일간지에 최일도 목사가 운영하는 청량리의 다일 공동체에 관한 이야기가 실렸다. 다일 공동체는 주로 가난한 노인들이나 행려자들을 위해 무료 급식을 제공하는 따뜻한 사랑의 실천을 하는 모임으로서, 조그마한 정성의 손길들이 합쳐져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들었다. 그러다가 조금 더 큰 일을 계획하여 무료 진료소의 건립까지 꿈꾸게 되었고, 이 꿈 역시 사랑의 나눔에 동참하는 많은 사람들의 정성으로 실현을 눈 앞에 두고 있다는 효뜻한 이야기다. 일일 일백만원씩 성



길희성 (서경대 종교학과 교수)

“믿음이 나눔으로 승화될때 종교간 공동체의식 싹터”

금을 내는 사람 1004명을 구해서 ‘천사의 집’을 짓기로 했는데 이미 그 숫자가 넘었다고 한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특기할만한 것은 이 모금 운동에 동참한 사람들 가운데는 불교 스님 20명, 가톨릭 신부 50명도 있다는 사실이다. 사랑의 실천 운동에 스님들과 사부님들이 참여하는 것이 무어 그리 특기할만한 일이라고 반문할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으나, 이 운동이 한 개인교 목사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것이기에 내에게는 그 사실이 또 다른 종류의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다. 그리고 나는 직감적으로 종교간의 갈

등과 대립을 푸는 해법도 바로 여기에 있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단적으로 말해 종교는 교리나 제도, 사상이나 조직이기에 앞서 마음이 실천이라는 생각이며, 종교간의 일치와 평화는 모든 종교인들이 바로 이 점을 깊이 깨달을 때 가능하다. 부처님 같은 마음과 행동은 결코 불교인들만의 독점물일 수 없으며, 예수 같은 마음과 행동 또한 기독교인들만의 전유물일 수 없다. 부처님의 성품을 지니려는 것 외에 불교가 무엇이냐, 예수의 마음을 닦으려는 것 외에 기독교가

전문가진단

종교연합·연구단체

종교간의 화합과 우의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종교연합단체 및 연구기관은 현재 한국종교인평화회의를 비롯해 대략 8개 단체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단체들은 불교 몇몇 단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종교관련서적 출판이나 세미나 개최 등 활동이 한정되어 있어 명실상부한 종교 화합을 다지기에는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여기에서는 설립취지 및 중점사업, 활동상황 등을 중심으로 개별 종교연합단체 및 종교연구단체를 소개한다.

◆한국종교인평화회의=불교, 가톨릭, 원불교, 유교, 천도교, 개신교 등 6개 종교 단체의 종교인들이 종교간의 협력사업을 목적으로 1986년 창립했다. 종교인평화회의는 남북교류, 인권·환경, 여성, 청년, 종교간대화위원회 등 5개 분과를 기초로 남북종교교류 등 사회문제에 종교적 시각에서 각 교단과의 협력을 통해 해결점을 모색하는 등 가장 실질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다. 지난해 종교지도자 세미나, 종교인 환경워크숍, 북한수재민돕기 등 서울과 지방에서 지방자치시대에 걸맞은 종교인의 위상 확립에 전력투구해 왔다. 특히 올해

사회참여·갈등개선 모색

에는 창립 10주년을 맞아 종교지도자 세미나 등 다채로운 기념행사를 마련해 종교간의 화합을 꾀할 방침이다.

◆한국종교인협의회=1965년 각 종교 지도급 인사들이 모여 창립했다. 1988년 불교, 천도교, 개신교, 유교, 원불교, 천리교, 이슬람교, 통일교, 대종교 등 9개 종교 10개 종단이 참여한 종교연합단체로 창립 이후 종교간의 대화와 이해를 위한 세미나·간담회·연구모임 등을 개최해 왔다. 계간지 <종협> 발간과 일본·중국·러시아 등과의 국제 종교인 교류 협력, 해외성지순례, 남북한 평화통일을 위한 평화봉사 노력 등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종교간 공존과 상호존중의 토대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한민족종교협의회=1985년 민족종교 상호간의 권익과 발전을 도모하고 민족종교체상을 정립해 국가·민족의 융성과 세계평화건설에 기여함을 취지로 창립했다. 천도교, 원불교, 대종교, 태극도, 경정유도, 증산법종교, 미륵불교, 증산교본부, 수운교, 천존회, 미륵대도, 청우일신회, 한불교 등 13개 교단이 참여하고 있다. 지금까지 각종 세미나 개최 및 각 교단별

도덕성회복운동, 자연보호운동 등을 전개, 민족종교 발전을 통한 사회발전을 꾀하고 있다.

◆삼소회(三笑會)=1988년 교리의 차이를 극복하고 편견과 아집, 독선의 타성을 깨고, 종교간의 화합과 친목을 도모하면서 서로 고통받는 이웃과 사회에 기여하려는 취지로 불교·원불교·천주교 3개 교단의 여성성직자 90여명이 창립했다.

창립 첫해인 88년 서울 세계장애자올림픽 때 이들을 위한 ‘삼소음악회’를 개최하고, 국내 뇌성마비장애자와 제3세계 기아들을 돕기 위한 시화전을 개최하는 등 각종 문화행사를 통해 어려운 이웃을 돕고, 여성문제에 대해 폭넓은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국제종교문제연구소=1970년 국제적 종교교류와 국내 종교 실태조사, 제반 종교문제, 사이버종교 및 이단의 척결을 취지로 창립했다. 특히 이단 사이버종교 척결을 위해 활동하던 중 초대 회장 탁명환 씨가 피살되는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으나, 계속해서 사이버종교에 대한 피해상담 및 학문적 연구에 주력, 일반에 사이버종교를 알리는데 주력하고 있다. 또한

무엇이겠는가? 자기중심적인 이기적 존재로부터 남을 위한 사랑과 자비의 존재로 변화되는 것이 불교와 그리스도교의 핵심이다. 사랑은 종교간의 울타리를 뛰어넘는 힘이며, 사랑을 외치는 종교들의 마지막 시대는 종교가 사랑을 위해 굳게 닫힌 자신의 울타리를 과감하게 터버릴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랑의 물결기가 종교간의 담에 의해 막혀 버린다면 아무도 종교가 전하는 인간구원의 메시지를 곧이 들으려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월간지 <현대종교>를 통해 각종 종교에 대한 소개 및 사이버종교 현황을 알리는 활동도 하고 있다.

◆종교문화연구원=1989년 다양한 종교전통과 문화를 조사연구하고 각 종교전통이 지닌 수행체계를 이해·실현함으로써 한국사회에 올바른 종교문화 정착을 취지로 창립했다. 중점사업으로 종교학관련서적 출판과 종교간 대화모임을 내세우고 있으며 종교학 교실, 명상교실, 동양학 교실, 국악강습 등 종교화합을 위한 대중 사업에도 주력하고 있다.

◆한국종교문화연구재단=1989년 현대종교문제연구소와 이문출판사를 흡수통합해 재단법인으로 창립했다. 한국종교문화연구재단은 오늘날 전세계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국교간의 갈등, 도덕적 가치관의 전도 등 제반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근본적인 가능성은 종교에 있다는 인식하에 제종교간의 대화를 통한 상호이해와 협력을 증진함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한국종교사회연구소=1988년 한국의 다종교상황과 세계종교사에 관한 자료를 수집, 종합적 연구를 통해 종교학 발전과 종교와 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창립했다. 창립 첫해부터 종교문화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계속해서 종교의 사회적 역할 등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종교의 사회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방화·승려비하등 훼손사건 잇달아

종교갈등 사례

■불교는 지옥?(1982년)-개종선교회를 뒤에 얻은 명진홍씨가 ‘예수 천당, 불교 지옥’이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진행된 불교비방집회에서 ‘불교비방당은 귀신의 종합청사’라고 주장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다.

■승려사칭 불교비방(1985년)-허위로 승려를 사칭한 광명전도단원 김진규씨가 ‘나는 왜 승복을 벗고 목사가 되었는가’라는 현수막을 걸고 불교비방집회를 열어 물의를 빚음

■예수재 오해 훼손행위(1990년)-사찰에서 봉행하는 예수재(豫修齋)를 자신들이 믿는 예수에 대한 모독행사로 오해, 여성들과 신학대학생이 불교비방 경교문을 부산 시내의 각 사찰과 신행단체에 부착 혹은 송부한 사건.

■불교방송국 피습(1990년)-불교방송 개국 하루전 이교도보 보이는 괴한 2명이 침입해 경비원을 구타하고 불상과 기자재를 파손, 불교도들을 경악케 한 사건.

■법당을 창고로(1993년)-육군 모부대 대대장이 부대창고가 비좁다는 이유로 법당을 폐쇄하고 불상을 포대에 넣어 뒷산에 버린 사건.

■스님에게 개종 강요(1994년)-목사 유승환씨가 불교를 우상숭배라고 비난하고 수도사 주지스님에게 대통령까지 거명하면서 개종을 강요, 이기적 전도행위라는 비난을 받음.

■사찰거주 노인 말다툼 후 사망(1996년)-법당에까지 선교를 목적으로 들어온 광신적인 기독교인의 말다툼 끝에 70세 노인이 숨져 세간에 충격을 안겨준 사건.

■현직 교사의 교실전도(1996년)-

경기 포천 송우초등학교 이모교사가 담당학급 어린이를 상대로 교회출석을 강요하고 이를 확인기 위해 찬송가를 부르게 하는 등 학교에서 특정종교 선교활동으로 인해 학부모들이 반발.

■근자가 십자가(1996년)-동국대 경주캠퍼스 국가계약대의 근자 회양목이 누군가에 의해 십자로 바뀐 사건이 발생. 상아탑에서조차 타종교를 비방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충격을 더해준 사례.

■공공편서 공문에 특정종교 문구 삽입(1996년)-부천시 원미구청이 부천 탁아소, 석왕사 원미어린이집 등 7개 시설에 발송한 업무연락 공문에서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하 나님의 평안이 있기를’이라는 특정종교 문구를 부산 시내의 각 사찰과 신행단체에 부착 혹은 송부한 사건.

■김영삼 대통령 국군중앙교회 예배사건(1996년)-김대통령이 국군중앙교회 예배과정에서 기독교인 장병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타종교인의 경계 근무자를 변경하고 법당 및 성당의 출입을 통제, 불교계 거센 항의.

■성직자 양성 전문대학원 추진(1996년)-교육개혁위원회가 발표한 교육관계법 시안이 개신교 교육체계를 기준으로 삼고 있어 불교계의 거센 항의가 잇따르자, 교육부는 불교계 여론을 무시한 방안이었음을 시인하고 이를 전면 백지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힘.

■사찰 연쇄 방화(1996년)-북한산 삼성암, 본원정사, 화계사에서 부처님 오신날을 앞두고 이교도들의 소행으로 보이는 연쇄 방화사건이 발생. 정선학 단 이교도에 의해 88년 금산사 대적광전, 87년 제주 관음사 등 전소.

싱가포르 ‘종교간 마찰방지법’ 제정

다종교국가 갈등현황

전세계 대부분의 국가는 다종교 사회를 인정하고 있다. 부분적으로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 나라들도 있지만 점차 종교의 자유를 확대하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다.

그러나 대부분의 나라가 종교간의 미묘한 긴장관계 속에서 평화적 공존을 위해 고심하고 있으며, 종교간의 갈등이 표출돼 인명이 살상되는 등 심각한 유혈사태를 빚는 나라도 적지 않다.

인도의 경우 지난 92년 힌두교와 회교도간의 종교갈등으로 무려 9백여명이 사망하고 교풍이 두절되는 사태를 빚었으며, 95년에는 정부군과 이슬람 반군간의 전투로 50여명이 사망하는 등 심각한 갈등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아프리카나스탄에서는 지난 92년 다수계인 수니파와 소수계인 시아파 회교도의 충돌로 1주일간 최소 50여명이 사망하고 2백여명이 부상당한 유혈 충돌이 발생했으며, 북아일랜드에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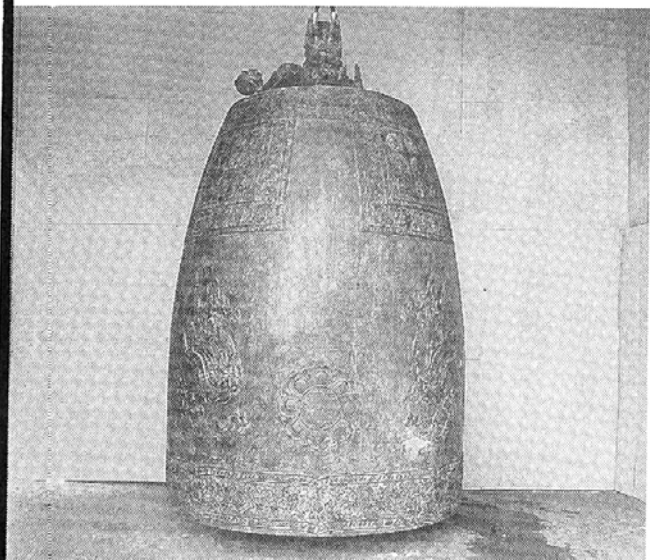
신교도 극단주의자의 총기 무차별 난사로 2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가톨릭과 신교도간의 종교분쟁이 가라 앉지 않고 있다.

불교국가인 태국의 경우 지난 93년 회교도들이 불교사원에 난입 수류탄 테러를 가해 예불 중이던 승려 11명이 중경상을 입는 등 불교와 회교도간의 종교분쟁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또 슬로바키아공화국은 전 인구의 3분의 2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가톨릭과 6%의 소수인 개신교간의 갈등으로 곳곳에서 마찰이 계속되고 있다.

심지어 싱가포르의 기독교의 공격적 선교행위로 인해 타종교와의 마찰이 계속되자 ‘종교간 마찰방지 및 평화공존을 위한 법안’ 제정을 고려하는 등 정부차원에서 종교간 마찰방지와 평화공존을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고심하고 있다.

한영우 기자

신라법종과 고불의 재현



“법종 주조의 기술혁신과 이조부처님의 재현을 위해 저희 성종사가 수년간 연구끝에 특수주조 정밀공법을 개발하였으니 고승 대덕 스님과 사부대중의 지도편달 바라오며 올해엔 한해도 불사의 현장에 창업 45주년 경험과 성실을 바탕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국내 최대 법종주조회사 성종사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72(조계사 앞)

■서울사무실 (02) 733-6141
■공 장 (0331) 283-2083
■부산지사 (051) 803-0781

대표 원광식(梵山) 합장